

하박국 강해⑦ “명쾌한 해답 3 -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9-14절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듣보가 응답하리라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는 하박국 2장 14-20절에 나와 있는 네 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혹은 ‘명쾌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며칠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조해서 기억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판 때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책 역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이전에 많이 들어 봤음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는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담임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 한 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심각하게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안했는데요”라고 말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학교 담임교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심각하게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안했다면 안 한 겁니다.”라고요. 정말 심각해진 목사님은 이 현실을 교회가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장로님들을 모아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장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법을 내 놓았습니다. “목사님, 만일 그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가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머가 떠도는 이유가 있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를 이야기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박국시대에도 지금도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려져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소득에 대한 심판

하박국 2장 9절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가운데 하나는 불의한 이득에 대한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에 바벨론은 점점 더 강대한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 갔지만, 이들의 힘이 정당한 방법이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이룩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들의 재산이 많아졌으나, 또한 불안이 더해졌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수리가 외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벨론 역시 맹금류에 속하는 독수리처럼 적수가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한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자니, 어제 그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해해야 한다는 염려로 인해 높고 튼튼한 성을 건설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힘으로 나라의 땅을 불리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높게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을 쌓는 순간’** 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하박국의 예언은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불의한 일로 재산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래 전입니다. 재산을 경매로 내 놓은 두 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에게 불법 비자금 조성에 따른 추징금이 2천 2백 5억 원인데, 3백 14억만 달랑 내고는 가진 돈이 29만원의 예금 밖에는 없다고 하자,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붙인 것입니다. 소파, 주전자, 피아노 텔레비전, 시계, 거기에는 7년을 기른 진돗개 두 마리까지 말입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연희동 집과 출판사, 대형 서점을 경영하는 자식의 재산은 손댈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공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랍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한사람의 재산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 엘튼 존이 자신의 모든 살림살이를 경매 처분하기 위해 **‘떨이 세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의도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경매 수입이 1백 3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숨겨 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많으리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러나 많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담을 쌓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모은 재물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물을 감추고 모은다 할지라도 한 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십분의 일은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물질 사용의 정의의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신명기 14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중에 스스로 정해 놓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으로 말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쌓는 곳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는 ‘모은 재산’을 자랑하는 때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늘어나는 재산을 보며 즐거워할 때’가 아닐까요?

어쩌면 늘어나는 재산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일정 부분 빛이 유지되도록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보면 주변에 재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으며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사명과 헌신의 즐거움’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은 결국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빛을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빛을 일찍 청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헌금들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죠. 물론 ‘절대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질 없이 사는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신앙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물질의 가치,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닐까요?

성경은 늘 물질에 대하여 ‘중립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한 부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죠.

잠언 11장 1절을 보세요.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물물 교환을 할 때 돌로 만든 추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다른 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현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돈은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돈을 모으는 부자들이 아니라, 주신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가치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는 말씀은 그 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박국 2장 12절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음진저

불의한 재산을 모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분명한 죄악이 있습니다.

피로 읍을 건설한 자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의 희생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하는 처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부하게 되거나, 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강성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성들은 정복지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된 자재들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약탈해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와 '불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행한 살육과 압제와 포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도 미워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을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부유한 나라들의 공통된 정책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와 편안함을 위해 임금을 적게 주고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좋게 생각하면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저렴하지만 큰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방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인종 분쟁의 내면에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여기저기서 느끼는 적개심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게 되면 '두려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성을 쌓고 관계를 단절합니다.

'자신들만의 리그'가 끝까지 지켜진 경우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단순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의 표출인 것이죠.

요즘 우리주변에는 참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수많은 유학생들의 아내가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때 힘들고 아팠으니 이제는 나도 충분히 보상받으며 살아야겠다는 논리보다는 “내가 고생하고 아팠던 때를 생각하니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역시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 화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리라, , ,

하박국 2장 14절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이는’ 이라는 말은 앞 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세워 놓은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은 한낱 불탈 것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괴롭게 하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러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물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라는 말은 온 **“바다가 물로 가득 차서 물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잔혹함과,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곧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 담임으로 가 있는 오성섭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설교에서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축복은 환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여서 온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절망을 통해 온다!”

하박국이 보았던 절망의 세상 한 복판에서 물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함과 포악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포악한 바벨론 백성들이 그렇게 기승(氣勝)을 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패망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
시는 장면을 보고 온 세상은 비로소 “아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 이시로
구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